

콜롬비아, 월마트 광고에 분노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가 마치 콜롬비아산 마약을 홍보하는 듯한 스웨터 광고를 웹사이트에 신자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가 콜롬비아 일간 엘티엠펜포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광고는 월마트 캐나다의 웹사이트에 실렸다. 해당 광고에는 푸른색 스웨터엔 탁자 앞에 앉아있는 산타클로스과 함께 '눈아, 내려라' (Let it snow)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얼핏 보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티셔츠 같지만 탁자 위에 하얀 가루가 세 줄로 놓여 있고 산타의 손엔 빨대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코카인 흡인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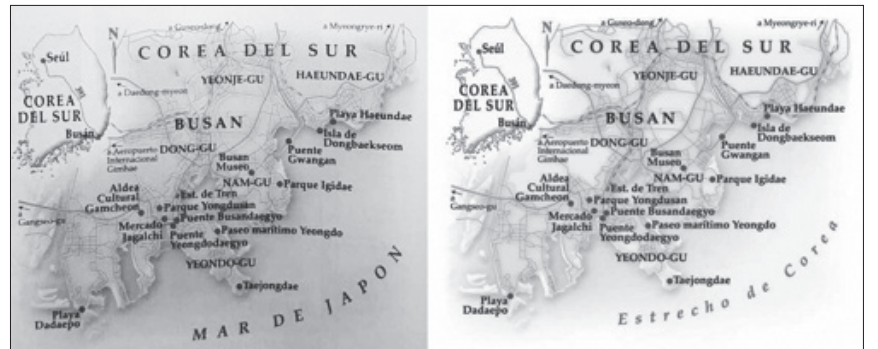
광고 문구는 보다 명확하다. 광고엔 "산타클로스는 질 좋은 A등급의 콜롬비아산 눈을 손에 넣은 순간을 정말 좋아한다. 그것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급 눈의 향기를 깊게 맡는다." 고 적혀 있었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월마트는 즉시 광고를 내리고 사과했다. 이 광고는 외부 판매자가 올린 것으로, 월마트는 이것이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으며 우리 웹사이트에 있을 수도 없다." 고 말했다.

코카인을 흡입하는 산타라는 스웨터 그림 자체도 부적절했지만, 마약국가의 대명사처럼 등장한 콜롬비아는 더욱 분노했다. 한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는 "월마트 광고는 콜롬비아 대한 모욕이며, 콜롬비아 제품과 명성에 해를 끼쳤다." 며 "월마트가 사과를 했지만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월마트 같은 회사가 콜롬비아 마약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마약 카르텔에 희생된 이들의 유족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라고 비난했다.

아르헨 언론, 잇따라 일본해→동해 수정

아르헨티나 매체들이 최근 한반도 관련 기사의 '일본해' 표기를 잇따라 '동해'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는 한국에 다녀간 '지한파' 기자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원장 조문행, 이하 문화원)이 전했다.



12일 '연합뉴스'이 문화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매체 '바에'는 지난 2일 미국이 대북 정찰 비행을 강화했다는 기사를 쓰면서 한반도 인근 바다를 '황해' (Mar Amarillo)와 '일본해' (Mar de Japon)로 단독 표기했다. 이를 발견한 문화원이 수정을 요청한 뒤 인터넷판에서 이들 표현은 곧 '서해' (Mar del Oeste)와 '동해' (Mar del Este)로 바뀌었다. 지난 10월에는 현지 월간지 '위켄드'가 부산을 소개한 기사에 삽입한 지도에서 한반도 남동부 앞바다를 '일본해'로 표기해 이를 '대한해협' (Estrecho de Corea)으로 바로잡기도 했다.

이 같은 오류 수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한국을 다녀간 아르헨티나 주요 매체의 기자들이라고 문화원은 설명한다. 한국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한 기자들이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있어

어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표기 변경 등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바에' 기사의 경우도 문화원이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에 참여했던 같은 매체의 가브리엘라 그라나타 기자에게 연락해 정정을 요청했고, 그라나타 기자가 회사를 설득해 변경을 이뤄냈다.

그라나타 기자는 "한국 방문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동해 표기 등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됐다." 고 말했다.

한국을 다녀간 기자들은 한반도 기사를 쓸 때 동해 단독 표기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문화원은 전했다.

조문행 원장은 "해외 언론인 초청사업을 활용해 꾸준히 지한파 언론인들을 양성해 나가겠다." 며 "이들과 협력해 잘못된 현지 보도를 바로잡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트럼프 "즉각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즉각 서명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아시아경제'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방위비 약 200억 달러(2.8%) 증액과 우주군 창설 지원, 병사 급여 3.1% 인상,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12주 유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트럼프 행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인 2만2,000명보다 기준을 6,500명 늘린 것이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번주 중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즉시 서명하겠다' 고 밝힌 것은 법안에 미군 급여 인상 등이 포함된 것을 부각하면서 표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난항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당분간 이 같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에도 예외규정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거나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번주 중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즉시 서명하겠다' 고 밝힌 것은 법안에 미군 급여 인상 등이 포함된 것을 부각하면서 표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